

관광지 연계 모노레일 설치...신나는 '남원여행'

춘향테마파크~함파우소리체험관~김병중 미술관 2.16km 구간 남원시, ㈜삼호 등과 협약...남원천문대 주변 짚와이어 건립도

남원지역 대표 관광지를 연결하는 모노레일 설치 본격화된다.

7일 남원시에 따르면 이환주 시장과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대표사인 ㈜삼호 조동윤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일 시청에서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삼호 등은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을 전담한다.

총 383억원을 투입해 남원관광지 내 춘향테마파크와 함파우소리체험관, 김병중 시립미술관을 연결하는 2.16km의 관광형 모노레일을 설치한다.

또 남원항공우주천문대 주변에 70m 높이의 짚 와이어에서 출발하는 2개 코스의 짚와이어를 건립한다.

남원시는 이 같은 사업의 추진을 위해 지난해 6

월 민간개발 사업자와 MOU를 체결했다.

올해 12월까지 실시계획을 완료하기 위해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했다. 최근 남원시의회로부터 실시협약 동의를 받는 등 모든 절차를 마쳤다. 다만 코로나19로 기공식 일정은 조율하고 있다.

남원시는 민간개발이 완료되면 관광위원회와 주변 관광지간 관광연계가 활발히 이뤄져 대표 관광도시 남원이 되고, 느끼는 체험형 관광지, 체류형 관광지로 변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환주 시장은 "모노레일과 짚와이어 설치에 대표 관광도시 남원의 체류형 관광거점의 토대를 마련해 줄 사업"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시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kwangju.co.kr

광지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

06. 04.(목) 남원시청회의실 남원시 SAMHO



지난 4일 남원시청에서 이환주 시장과 조동윤 ㈜삼호 본부장 등이 '남원관광지 민간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남원시 제공>

군산해경, '드론 순찰대' 창설 해경 첫...민간대원 40명 참여

군산해양경찰서에 드론을 이용한 순찰대가 해양 경찰청 최초로 창설됐다.

군산해양경찰은 수색구조 감시체계의 고도화와 바다안전에 대한 민간 참여 증진을 목표로 한국 해양구조협회, 전북인력개발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스마트 해양드론 순찰대(드론 순찰대)'를 창설했다고 7일 밝혔다.

드론이 해상 실종사고 발생 시 수색지원으로 활용되긴 했지만, 이처럼 조직의 명칭과 활동 방법, 수색범위를 규정한 순찰대가 구성되기는 처음이다.

드론 순찰대는 군산해양경찰 무인항공기 운영팀과 한국 해양구조협회 전북지부에 소속된 드론팀으로 구성되며 40명의 민간 회원 등 총 50명이 활동한다.

드론 순찰대는 군산항과 새만금 방조제, 고군산군도를 중심으로 주말과 해수욕장 개장 시기에 광범위한 연안 해상을 순찰하게 된다.

드론 순찰대에서 사용하는 드론은 영상촬영 기능뿐 아니라 ▲갯바위 고립사고 예방, 출입금지 방파제 경고 방송 ▲인명구조 장비 전달 ▲해양오염 사고 추적감시 등의 기능이 탑재된 해양구조에 특화 설계된 장비들이다.

특히, 순찰대 창설에 맞춰 추가로 선보이는 드론은 수중을 수색할 수 있는 소나(SONAR)를 탑재하고 잠수 기능도 갖추고 있어 실종자 수색에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해경은 기대하고 있다.

군산해경은 지속적으로 드론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전북인력개발원의 도움을 받기로 했으며, 매년 8명의 경찰관이 드론 전문가 교육을 이수할 계획이다.

/군산=박금석 기자 nogusu@kwangju.co.kr



고창군과 고창지역 환경단체들이 '제25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지난 5일 고창자연마당에서 '한반도 첫수도 고창환경선언문'을 선포했다. <고창군 제공>

고창군, '한반도 첫 수도 고창환경선언문' 선포 유기상 군수 등 5개 환경단체 대표 참석 환경보전 결의

고창군이 지난 5일 '제25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고창 자연마당에서 '한반도 첫 수도 고창환경선언문'을 선포했다.

7일 고창군에 따르면 선포식은 심각한 환경오염과 기후변화로부터 행정구역 전체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고창지역의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한 전 국민의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유기상 고창군수를 비롯해 조규철 고창군의회 의장, 고창군생태환경보전협의회, 환경보호 국민운동본부, 자연보호고창군협의회, 강살리기고창네트워크, 고창군기호환경네트워크 등 5개 환경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고창환경선언문에 서명했다.

선언문에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에 적극 대응하고,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기 위해, 적극적인 환경 행정 추진과 군민이 자발적으로 동참을 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유기상 군수는 "환경을 위한 작은 실천이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깨끗한 세상을 선물할 것"이라며 "고창환경선언문 선포를 계기로 군민 모두가 깨끗한 환경을 지키고, 다양한 생물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관심을 기울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창=김형조 기자 khj@kwangju.co.kr

익산시, 금연아파트 3곳 지정

익산시는 부송라운프라이빗 1·2단지, 부송코아루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공동주택 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에서 흡연하지 못하도록 하며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지정한다.

금연아파트 지정과 함께 3개월간의 계도기간이 지나면 흡연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익산시는 아파트 정문과 금연구역시설 출입구에 부착할 안내 표지판과 스티커를 제작 배포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kwangju.co.kr

윤준병 국회의원, 1호 법안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원법' 발의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사진)이 제21대 국회 등원 제1호법안으로 '농어업인 공익수당지원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는 농어업인 공익수당이 농어민 생활 안정과 소득 향상에 필요한 수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도록 했다.

관할 지자체장이 연 120만원 이상의 공익수당을 지급하고 국가는 비용 중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90 이하 범위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국가 부담 비용을 제외한 비용은 시·도지사과 지자체장이 협의에 분담한다.

윤 의원은 "농어업 가구의 소득은 도시 근로자의 65~80% 수준에 불과하다. 농어업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없이는 자생적으로 지속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 보장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이 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parkks@

조택수 정읍사문화제 이사장 '수필과 비평' 신인상 수상



(사)정읍사문화제 제29회 원회조택수(사진)이사장이 수필 '외갓집 유자나무'로 '수필과 비평' 신인상을 받았다.

'외갓집 유자나무'는 휴에서 태어나고 자라며 평생을 흠과 살았던 조 작가가 외갓집 풍경의 변화에서 세대 간 교체를 읽어낸다. 우물가의 유자나무는 어머니를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다. 외갓집을 중심으로 한 풍경이 한 장의 정겨운 시골 풍경처럼 구체적으로 그려져 있고, 훗날 외갓집을 다시 찾았을 때 온데 간데 없이 사라진 유자나무는 세대 간 교체를 상징함으로써 이 글의 주제 의식을 구현했다.

조 작가는 "멈추지 않고 쓰는 날까지 열심히 쓰고, 지우고, 다시 쓰겠다"며 "휴 속에 품은 씨앗이 때가 되면 밖으로 얼굴을 내밀 듯 글감을 품어 싹을 틔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 작가는 고려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하고 2018년 '시선'으로 등단했으며 지난 2월 시집 '제 멋에 취한 몽당뽕'을 발간했다. 한국문인협회 정읍지부 회원, 정읍수필문학회·아람수필문학회 회원, 성균관유도회 전북총본부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정읍=박기섭 기자 parkks@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815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켜줍니다

알고계시나요? 신협의 7대 포용금융 프로젝트

- 고금리 대출을 3.1%~8.15%로 대환해 드리는 815대출
- 3~9개월 55세 이상 저소득층 저금리 무보증 대출
-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 65세 이상 초장년층 소상공인·농어업인 고용지원
- 고산·고령 등 고령·고령 취약지역 주민의 무이자 대출
- 3~9개월 55세 이상 저소득층 무보증 대출
- 65세 이상 초장년층 소상공인·농어업인 고용지원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해방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해방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기간 최대 5년 (기한연장 포함)

상환방식 만기일상환 또는 매월 원금(일부) 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첨단지점 576-4150
---------------	---------------	---------------	----------------	---------------	---------------